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에 미치는 영향

최정명*
혜전대학교 사회복지과

The Effect of Parents'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Resilience and Academic Burnout

Jung-Myung Choi*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yejeon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충청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총 201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SPSS 21.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아질수록 회복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적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아질수록 학업적소진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회복탄력성 전체와 학업적소진 전체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ents'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resilience and academic burnout.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colleges in Chungcheong-do, and a total of 201 people were finally analyzed. The data analysis method was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SPSS 21.0 and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silience, and it can be seen that the resilience increases as th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increases. It was found that positive parenting attitud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cademic burnout, and as th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increases, academic burnout decreases. Looking at the correlation between resilience and academic burnout of college students, it was found that overall resilience and overall academic burnout had a significant negative (-) correlation.

Key Words Academic Burnout, Positive Parenting Attitude, Resilience

1. 서론

현재 대학생들이 당면하는 사회는 다양성, 다원성의 사회로 더 경쟁적이고 변화 속도가 빠른 사회이며 성공에 대한 압력이 많다. 현대에는 좌절과 결핍, 고통, 슬픔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 작은 좌절에 취약하며 자해 행동을 하는 등의 정다[1].

이런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는 피로감과 좌절감, 학업 무력감, 냉소적인 태도, 학업 관심 부족으로 인한 낮은 성취감 등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고갈 상태가 나타나는 증상을 김민애[2]는 학업적소진이라 정의했다. 또한 이영복[3]은 장기간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된 심리적인 고갈을 학업적소진이라 정의하였고, 학업적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탈진, 반감, 냉담, 무능감 등을 나타내며, 결국 높은 결석

*Corresponding Author : Jung Myung Choi(Hyejeon Colle.)

E-mail: steer@hj.ac.kr

Received Jul 11, 2022

Revised Aug 15, 2022

Accepted Sep 30, 2022

를과 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에게 이와 같은 학업적소진은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취업과 직결되는 학업에서 심리적 어려움이나 정서적 소진을 겪기 때문이다[4].

최근 회복탄력성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 회복탄력성이란 자신이 처한 역경 극복 및 성공적인 적응 능력을 말한다. 즉 회복탄력성은 어려운 환경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 이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관여를 통해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하는 심리적인 능력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회복탄력성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이라 하였다[5].

회복탄력성의 근원은 사랑을 기초로 한 인간 관계이며, 아이들이 역경에 굴하지 않고, 열악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누군가의 신뢰와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다[6].

자녀가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의 하나는 부모이며 자녀에게 부모는 삶의 가치관 및 태도, 생활 습관의 역할 모델로서 자녀가 경험하는 가정 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7]. 부모의 양육태도는 양육자 또는 어머니가 자녀 양육 시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위해 일반적이며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고 가정에서 자녀 성격, 가치체계, 태도, 행동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8].

Hurlock도 부모 양육태도는 자녀 태도와 행동 결정 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훌륭하게 자란 자녀의 배경에는 대부분 호의적, 긍정적 양육태도와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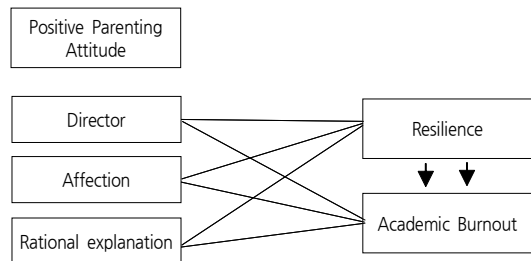
그동안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가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회복탄력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학생의 학업적소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및 가설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1.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가설 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가 학업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가설 3. 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사전에 공지한 후 이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온라인을 사용하였고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이다. 총설문에 응답한 206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부를 제외한 20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설문 문항은 일반적 특성 5문항,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 10문항, 회복탄력성 27문항, 학업적소진 17문항으로 총 5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1 긍정적양육태도

본 연구는 긍정적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10]이 Jacobson의 유형론적 양육태도에 기초하여 한국인에 맞게 개발한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긍정적양육태도(총 10문항)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감독(3문항), 애정(4문항), 합리적 설명(3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인식한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양육태도의 신뢰도는 [표 1]과 같이 Cronbach's α 값이 .9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은 감독 .733, 애정 .851, 합리적 설명 .781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Table 1] Positive Parenting Attitude

[표 1] 긍정적양육태도

Variables	Number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Director	1, 4, 8	3	.733
Affection	3, 5, 7, 10	4	.851
Rational explanation	2, 6, 9	3	.781
Total		10	.935

2.3.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11]이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Duran, 1983; Seligman, 2002; Revich & Shatte, 2002; Wiemann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YKRQ-27을 안시현[12]이 재인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회복탄력성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9문항), 긍정성(9문항), 대인

관계능력(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총 27문항이다. 역채점 문항인 9, 10, 12, 19, 20, 21번 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여 처리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2]에서 회복탄력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93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은 자기조절능력 .886, 긍정성 .853, 대인관계능력 .794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Table 2] Resilience

[표 2] 회복탄력성

Variables	Number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Self-regulating ability	1, 2, 3, 4, 5, 6, 7, 8, 9*	9	.886
Positivity	10*, 11, 12*, 13, 14, 15, 16, 17, 18	9	.853
Interpersonal skills	19*, 20*, 21*, 22, 23, 24, 25, 26, 27	9	.794
Total		27	.930

*inverse conversion

2.3.3 학업적소진

학업적소진 척도는 Maslach & Jackson에 의해 개발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최혜윤[13]이 번안하여 사용했던 척도에서 오태한[14]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적소진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탈진, 타인에 대한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로 하위요인과 요인별 문항구성 및 Cronbach's α 값은 아래 [표 3]과 같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관련 변인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소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9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은 정서적 탈진 .840, 타인에 대한 비인격화 .774, 개인적 성취감 감소 .895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Table 3] Academic Burnout

[표 3] 학업적소진

Variables	Number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Emotional exhaustion	1, 2, 3, 5, 6, 10, 11, 13	8	.840
Depersonalization of others	4, 8, 12, 17	4	.774
Decrease in personal fulfillment	7, 9, 14, 15, 16	5	.895
Total		17	.935

2.4 자료분석 방법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Windows version 21.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다.

첫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긍정적 양육태도, 회복탄력성, 학업적소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넷째, 긍정적 양육태도와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 학업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성별은 여자가 142명(70.6%), 남자가 59명(29.4%)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92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4학년이 4명(2.0%)으로 가장 적었다. 종교는 없음이 121명(60.2%)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54명(26.9%), 천주교 13명(6.5%), 불교 10명(5.0%), 기타 3명(1.5%)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 93명(46.3%)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교육 정도도 고등학교 졸업이 108명(53.7%)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표 4] 일반적 특성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59	29.4
	Female	142	70.6
School year	first grader	92	45.8
	the second grade	51	25.4
	3rd grade	54	26.9
	4th grade	4	2.0
Religion	Christian	54	26.9
	Catholic	13	6.5
	Buddhism	10	5.0
	etc	3	1.5
	none	121	60.2
Father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18	9.0
	Middle school graduation	20	10.0
	high school graduation	93	46.3
	a college graduation	66	32.8
	graduate school or higher	4	2.0
Mother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26	12.9
	Middle school graduation	12	6.0
	high school graduation	108	53.7
	a college graduation	52	25.9
	graduate school or higher	3	1.5

3.2 변수의 기술통계

긍정적 양육태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를 매겼다. 평균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표 5]와 같이 평균 3.82점(SD=5.839)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은 감독(M=3.85, SD=.842), 애정(M=3.82, SD=.849), 합리적 설명(M=3.79, SD=.82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를 매겼다. 평균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표 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3.67점(SD=.582)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은 긍정성(M=3.76, SD=.661), 대인관계능력(M=3.65, SD=.612), 자기조절능력(M=3.61, SD=.69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업적소진도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를 매겼다. 평균이 높을수록 학업적소진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업적소진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2.51점(SD=.776)으로 하위요인은 정서적 탈진(M=2.75, SD=.752), 개인적 성취감 감소(M=2.45, SD=.924), 타인에 대한 비인격화(M=2.33, SD=.830)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Positive Parenting Attitude descriptive statistics

[표 5] 긍정적인양육태도

Variables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Director	201	3.85	.842
Affection	201	3.82	.849
Rational explanation	201	3.79	.822
Total	201	3.82	.806

[Table 6] Resilience descriptive statistics

[표 6] 회복탄력성

Variables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Self-regulating ability	201	3.61	.698
Positivity	201	3.76	.661
Interpersonal skills	201	3.65	.612
Total	201	3.67	.582

[Table 7] Academic Burnout descriptive statistics

[표 7] 학업적소진

Variables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Emotional exhaustion	201	2.75	.752
Depersonalization of others	201	2.33	.830
Decrease in personal fulfillment	201	2.45	.924
Total	201	2.51	.776

3.3 회귀분석

3.3.1 긍정적인양육태도 전체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양육태도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B=.488(t=12.897, p<.001)로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아질수록 회복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명력은 45.5%이며, 회귀모형은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F=166.339, p<.001).

[Table 8] Regression analysis

[표 8] 회귀분석

Resilience	non-standardizing		standardizing		t	significance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factor beta	factor beta		
(constant)	1.810	.148			12.273	.000
Positive Parenting Attitude	.488	.038	.675		12.897***	.000

R²=.455, F=166.339, p<.001

*p<.05, **p<.01, ***p<.001

3.3.2 긍정적인양육태도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표 9]와 같이 합리적 설명(B=.264, t=2.784, p<.01)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설명이 높

아질수록 회복탄력성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명력은 45.9%이며, 회귀모형은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F=55.781, p<.001).

[Table 9] Regression analysis

[표 9] 회귀분석

Resilience	non-standardizing factor		standardizing factor	t	significance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1.810	.148		12.273	.000
Director	.074	.087	.107	.851	.396
Affection	.152	.087	.222	1.742	.083
Rational explanation	.264	.095	.372	2.784**	.006

R²=.459, F=55.781, p<.001

*p<.05, **p<.01, ***p<.001

3.3.3 긍정적양육태도 전체가 학업적소진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양육태도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B=-.263(t=-3.998, p<.001)로 학업적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양육태도가 높아질수록 학업적소진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명력은 7.4%이며, 회귀모형은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F=15.983, p<.001).

[Table 10] Regression analysis

[표 10] 회귀분석

Academic Burnout	non-standardizing factor		standardizing factor	t	significance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3.514	.256		13.711	.000
Positive Parenting Attitude	-.263	.066	-.273	-3.998***	.000

R²=.074, F=15.983, p<.001

*p<.05, **p<.01, ***p<.001

3.3.4 긍정적양육태도 하위요인이 학업적소진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이 학업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표 11]과 같다. 감독, 애정, 합리적설명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7.5%이며, 회귀모형은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F=5.290, p<.01).

[Table 11] Regression analysis

[표 11] 회귀분석

Academic Burnout	non-standardizing factor		standardizing factor	t	significance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3.511	.258		13.619	.000
Director	-.067	.152	-.073	-.444	.658
Affection	-.119	.152	-.130	-.780	.437
Rational explanation	-.076	.165	-.081	-.461	.645

R²=.075, F=5.290, p<.01

3.4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의 상관관계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12]와 같다. 회복탄력성 전체와 학업적소진 전체는 r=-.508(p<.001)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조절 능력과 정서적 탈진(r=-.352, p<.001), 타인에 대한 비인격화(r=-.291, p<.001), 개인적 성취감 감소(r=-.461, p<.001)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성과 정서적 탈진(r=-.369, p<.001), 타인에 대한 비인격화(r=-.418, p<.001), 개인적 성취감 감소(r=-.450, p<.001)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적 탈진(r=-.359, p<.001), 타인에 대한 비인격화(r=-.475, p<.001), 개인적 성취감 감소(r=-.570, p<.001)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표 12] 변수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Self-regulating ability								
2) Positivity	.664***	1						
3) Interpersonal skills	.678***	.692***	1					
4) Resilience	.888***	.886***	.883***	1				
5) Emotional exhaustion	-.352***	-.369***	-.359***	-.406***	1			
6) Depersonalization of others	-.291***	-.418***	-.475***	-.441***	.746***	1		
7) Decrease in personal fulfillment	-.461***	-.450***	-.570***	-.554***	.813***	.816***	1	
8) Academic Burnout	-.400***	-.447***	-.511***	-.508***	.912***	.921***	.950***	1

*p<.05, **p<.01, ***p<.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전체 긍정적양육태도는 평균 3.82로 높게 나왔으며 하위요인인 감독이 3.85로 가장 높았으며 애정(3.82), 합리적 설명(3.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의 순으로 긍정적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회복탄력성은 3.67로 높게 나타났고, 긍정성(3.76), 대인관계능력(3.65), 자기조절능력(3.61)의 순으로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적소진은 전체 2.51로 조금 낮게 나왔으며 정서적 탈진(2.75), 개인적성취감 감소(2.45), 타인에 대한 비인격화(2.3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적소진은 평균이 낮을수록 소진이 감소됨을 의미하며 하위요인 중 비인격화가 소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긍정적양육태도와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 학업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가설1

과 가설 2는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양육태도 전체는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F=166.339$, $p<.001$)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아질수록 회복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가설1은 검증되었다. 긍정적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합리적 설명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F=55.781$, $p<.001$)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설명이 높아질수록 회복탄력성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긍정적양육태도 전체가 학업적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F=15.983$, $p<.001$)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양육태도가 높아질수록 학업적소진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가설2는 검증되었다. 긍정적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이 학업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과 하위요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회복탄력성 전체와 학업적소진 전체는 $r=-.508$ ($p<.001$)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이 높아질수록 학업적소진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적 탈진($r=-.352$, $p<.001$), 타인에 대한 비인격화($r=-.291$, $p<.001$), 개인적 성취감 감소($r=-.461$, $p<.001$)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성과 정서적 탈진($r=-.369$, $p<.001$), 타인에 대한 비인격화($r=-.418$, $p<.001$), 개인적 성취감 감소($r=-.450$, $p<.001$)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적 탈진($r=-.359$, $p<.001$), 타인에 대한 비인격화($r=-.475$, $p<.001$), 개인적 성취감 감소($r=-.570$, $p<.001$)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3은 검증되었다.

즉 분석결과 자녀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적소진이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현주[15]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학업적소진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이한준[1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고등학생 자녀의 회복탄력성이 더 높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고등학생 자녀의 학업적소진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결국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추후 연구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를 높이는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W-H. Moon, K-S. Chung, and M-J. Kim, 'Mental Health, Stress, Coping Ability, and Coping Strategie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 Health Educ Promot*, Vol.29, No.3, pp.103-114, 2012.
- [2] M-A.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demand and academic burnout: the role of control",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10
- [3] Y-B. Lee, S-M. Lee, and J-Y. Lee, 'Development of Korean Academic Burnout Scale', *Korean Educational Studies*, v.15 no.3, pp.59 - 78, 2009.
- [4] G-Y. Kim, "Effects of Academic Resilience on Academic Burnout in University Students: major and grade difference",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6.
- [5] H-J. Lee, "The relationship among the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f high school student, resilience and academic burnout", Maste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2014.
- [6] M-H. Park,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on Resilience",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20.
- [7] D-Y. Ha,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Emotion Regula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 and Resilience",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2020.
- [8] S-J. Kim, and Y-H. Kim, 'Review about Child Rearing Attitude of Parent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v.10 no.2, pp.172 - 181, 2007.
- [9] M-H. Park,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on Resilience",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20.
- [10] M-Y. Huh,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Youth Counseling Study*, 12(2): 170-189, 2004.
- [11] W-Y. Shin, M-G. Kim, and J-H. Kim,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v. 20 no.4 = no.54, pp.105 - 131, 2009.
- [12] S-H. Ahn, "The Effect of Kindergarten Teachers' Recovery Resilience on Psychological Burnout",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2017.
- [13] H-Y. Choi, "Perfectionism Tendency, Social Support, and Burnout Among Counselor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02.
- [14] T-H. Oh, "The Influence of Sports Activities on Burnout and Resilience of Korean Adolescents", Master's Thesis, *Woosuk University*, 2016.
- [15] H-J. Lee, 'Effects of Resilience on Academic Burnout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 for group with Low Resilience',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20 no.1 , pp.85 - 95, 2019.
- [16] H-J. Jin, "The Effect of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elf-Esteem o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Maste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2014.

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
14.